

# “기생충의 생존과 공존, 인간 사회와 닮은 꼴”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

## ‘못생김’이란 한계 때문에 웃겨야 하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기생충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 다해 살아가는 생명체

기생충 ‘시모토야 엑시구아’는 물고기의 허를 찌른 뒤 자신이 대신 허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시모토야 엑시구아의 존재가 물고기에게 이득을 준다고 말한다. 허가 아예 없는 물고기에게 비해 시모토야 엑시구아가 허 역할을 하는 물고기가 더욱 건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입안의 먹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모토야 엑시구아가 기존의 허보다 더 효율적으로 막아준다. 물론 자신 또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본능이지만 시모토야 엑시구아는 물고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진 않는다.

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는 “기생충은 생각보다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생존을 위해 기생하지만 아무 이유없이 숙주를 죽이거나 공격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숙주가 죽거나 괴로워하면 기생충 또한 삶의 타전을 잃거나 영양분 공급 등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는 서 교수 특유의 ‘못생김’으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작고 못생겼었다. 이 때문에 웃겨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마도 개그맨 중 못생김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못생김’이라는 한계 때문에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박지성 등 유명 운동선수들 중 ‘못생겨 운동 밖에 할 게’ 없는 사람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서민의 못생김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웃겨야 하겠다’로 연결됐고, 결국에는 글쓰기를 낳았다. 서민은 대학시절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뜨고 싶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첫 책 ‘마태우스’(마침내 태어난 우리의 스타의 줄인 말) 등 5권의 책을 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어 영화 ‘연가시’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기생충에 쏠려 자신의 글들이 읽히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글을 쓰지 않던 서민은 책을 기록하는 ‘책 달력’을 만들었고 블로그에 매일 2편씩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민의 못생김’은 자연스럽게 ‘기생충의 역울함’으로 이어졌다. 못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기생충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기생충에 얽힌 대부분 이야기는 ‘오해’라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 등을 통해 꽃게회충과 고래회충이 회자하면서 꽃게와 생선회가 팔리지 않았던



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기생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어류에는 기생충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회를 뜰 때 기생충이 있는 내장을 잘 제거하면 되는데 간혹 생선의 살에 기생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생충이 살아가는 지혜와 노력을 안다면 무작정 기생충을 미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기생충은 물고기가 물 표면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유도한

다. 찌릿기를 위해 새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기생하는 물고기가 새에 더욱 잘 잡혀먹힐 수 있도록 물고기를 물 표면에 유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개구리의 뒷다리를 여러 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한 채 새에 잡히게 하거나, 개미의 몸통이 붉은 열매처럼 보여 새에게 먹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기생충이 있다.

또 사람의 발이 뜨겁게 한 뒤 사람이 발을 물에 담

으면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기생충도 있다. 이 기생충은 이를 위해 수개월 동안 사람의 근육을 뚫고 발로 이동한다. 이는 번식을 위한 ‘지역한 모성’이라고 서 교수는 말했다.

그는 “기생충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다 나름의 ‘한 방’이 있기 때문이며 인간도 기생충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선한병원-롯데백화점 보육시설 이용 협약



선한병원(병원장 정성현)은 8일 광주시 서구 관천동 선한병원 선한어린이집(선한병원 직장내 보육시설)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김정현)과 지정병원 및 직장내 보육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협약을 맺었다. <선한병원 제공>

## 광주교통연수원·남구청 교통안전 간담회



장용식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과 최영호 광주시 남구청장 등은 8일 ‘우리동네 교통안전지킴이’ 간담회를 가진 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제공>

## 이정일 전 국회의원 7주기 맞아 추모집 발간

### 생전 발자취 사진 등 담겨

승정(乘桴) 이정일(사진) 전 국회의원 7주기를 맞아 추모사업회에서 추모집 ‘이정일이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발간했다.

추모집에는 추모사업회 활동 소식과 각계 각층 인사들이 기억하는 이정일 전 의원의 모습, 생전 활동 사진, 자서전 발췌문 등이 담겼다.

조건국 추모사업회장과 이재우 추진위원장은 “이정일 회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7년”이라며 “다소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를 기억하는 몇몇이 모여 이정일 회장이 생전에 못다 이룬 큰 뜻을 추모하고 고인의 업적을 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정일 전 의원을 “의리와 열정을 갖춘 보기 드문 정치



이정일 전 국회의원

인”으로 회상했다.

김 전 의장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박학다식한 식견으로 방문국 인사들을 휘어잡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며 “타계 3~4일 전에도 어려움에 처한 당의 회생과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오랜 시간 얘기했다”고 적었다.

추모집에는 지난 2000년 이정일 전 의원이 펴낸 자서전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의 발췌문 5편도 실려있다.

이 전 의원은 자서전에 “지금도 고향(해남)을 등진 이들이 많아 예전의 고향 같지 않다”며 “떠나가는 농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었다”고 적었다.

/박기웅기자 pboxer@

## 박정환-이세돌 내일 응씨배 결승 티켓 놓고 맞붙는다

국내랭킹 1위 박정환 9단과 2위 이세돌(사진) 9단이 응씨(應氏)배 결승 티켓을 놓고 10일부터 대국한다.

박정환 9단과 이세돌 9단은 10일과 12일, 14일 중국 우한 완다루이화 호텔에서 제8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 준결승 3번기에 나선다.



박정환 9단

응씨배 3번기는 박정환 9단과 이세돌 9단의 한-한 전과 스웨 9단, 탕웨이싱 9단의 중-중전 대진으로 펼쳐져 결승전은 한·중 대결이 예견된 상태다.

/박기웅기자 pboxer@

## “후광학술상 상금 5·18 시민군 후손 위해 쓰겠다”

### 조지 카치아피카스 전액 기부

조지 카치아피카스(66) 전 미국 웨스트우드대 교수가 제 9회 후광학술상 상금 전액(1000만원)을 5·18 시민군 후손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전남대에서 열린 후광학술상 시상식에서 “상금을 시민군 후손들의 그리스도 국가 방문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광주 5·18민주항쟁이 한국에서 시작돼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됐다. 후손들이 더 멋진 세계 시민들이 되기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전 교수는 지난 1990년



조지 카치아피카스 전 교수

부터 25년간 미국 웨스트우드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신자주의 사회의 정치·사회적 동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비판과 세계 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후광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후광학술상은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함양,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한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남대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23년째 무료 개보수

### 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박철홍)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1994년 이후 23년째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18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무료 주택 개보수 대상은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애국지사 유족 박

모(82)씨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5명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는 지역 주택건설사 14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달부터 출입문과 방, 부엌, 마루,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지붕개량공사와 도색, 보일러 교체, 도배 등을 진행 중이다. 이달말까지 완공이 목표다.

박철홍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지역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개보수했다”며 “더많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송승중(광주세계수영대회 지원단장)·김복순씨 장남 대웅군(광남일보 기자) 김영배·김순희씨 장녀 유림양=11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제이아트 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몰.
- ▲박복만·권순정씨 장남 찬영군 박경석(광주일보 첨단지구장)·박금자씨 장녀 예슬양=11일(토)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N타워컨벤션웨딩홀 2층 아이리스홀 063-253-9000.
- ▲안준현(전 광주시 공무원)·김경남씨 장남 교석군 범형렬·이현덕씨 장녀 헤민양=11일(토) 낮 12시 광주시 북구 안암동 그랑시아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홀, 010-9941-0041.
- ▲정효채(삼성에버랜드 퇴직)·양옥련씨 장남 찬희군(삼성전자) 주신호(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질임씨 차녀 송이양(LG전자)=25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강남 테헤란리하우스 단독홀, 피로연=11일(토) 낮 12시 목포시 용해동 예술웨딩컨벤션 061-276-0050.

- ▲여관구(대성약국)·최영숙씨 장남 준수(화순군청)군 이형보·문정란씨 장녀 희선(화순군청)양=18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사넬홀.

### 종친회

- ▲경주배씨 고려 항몽(抗蒙) 삼별초 배중순 장군 봉행 광주종친회=15일(수) 낮 12시 진도군 임회면 골포리 정충사, 15일 오전 8시 광주동부경찰 뒤편 버스출발, 문의 010-8623-4949.

###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

- 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아동)을 대상 무료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 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수강생=10일(금)까지 핸드마사지 및 네일아트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 062-228-1365.
-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 부음

- ▲변상임씨 별세 김선진(두원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발인 9일(목)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장레식장 특2호실 062-

- 264-4444.
- ▲박봉열씨 별세 충훈·정임씨 부친상 오병훈씨 부방부상=발인 10일(금) 조선대 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b>201호 故 박영우 님(남/84세)</b> 女/痛 : 박봉남/박영숙, 봉산/김남숙 女/痛 : 박봉남/윤영택, 임희/이남철, 봉희/우동은, 자연/김병우, 선화/최경규 未亡人 : 윤계순 • 발 인 : 6월 10일 • 장 지 : 영암 미암선영 • 연락처 : 227-4381	<b>301호 故 임오성 님(남/60세)</b> 子/子婦 : 임대후/김다영 女/痛 : 임은애/이상훈, 최연/문영식, 은희/최희갑 未亡人 : 문삼애 • 발 인 : 6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2
<b>401호 故 김봉덕 님(여/83세)</b> 子/子婦 : 윤수호/이진숙, 전호/박시원, 구일/이영희 女/痛 : 윤소복/김영란, 민숙/양동만 夫君 : 윤재춘 • 발 인 : 6월 9일 • 장 지 : 화산 청룡선영 • 연락처 : 227-4383	<b>101호 故 배동재 님(남/69세)</b> 子 : 배주호 女/痛 : 배현정/김종운 未亡人 : 구계순 • 발 인 : 6월 10일 • 장 지 : 담양 부활의집 • 연락처 : 227-4000
<b>102호 故 김덕중 님(남/73세)</b> 子/子婦 : 김연중/도숙희 • 발 인 : 6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